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용원동지, 리병철동지, 리종식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술 인 전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대만족을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았으며 새로 개발 조용원동지, 김용수동지, 김장선동지, 무기의 위력을 보이고 우리 국방과학자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시였다. 박성천동지가 동행하였다. 들과 군수물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높이는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냈
최고령도자동지를 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현지에서 국방과학부문을 종지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
과 군수공장의 책임 시며 개발완성으로 절름절름 이끌어오시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든 무기체계가 드디어 탄생하였다고, 저
우리 당의 정력적인 무기는 유복자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령도아래 오랜 기간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연구개발되어온 첨단 더욱 간절해진다고 걱정을 누르지 못하
전술무기는 우리 국가 시였다.

의 병토를 철벽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 무기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 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자기의 우월하고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의
위력한 설계상지표들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의
을 모두 만족시킨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첨단전술무기시험은 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파시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문재인대통령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문재인대통령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시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동포애의 정을 담아 송이바섯을 보내주신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량의 제주도감귤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8일 로씨야 모스크바주제 사상연구소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조책임자 미하일 위돌린 미하일로비치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알제리-조선 친선협회 위원장 카말 도하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8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주체비료생산성과 확대 남 흥 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면서 주체비료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남흥로동계급은 이달에 들어와 15일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천수리나 주체비료를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새번영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면에서 활성화의 불꽃구름을 열어제끼야 하겠소이다.》

당의 부름이라면 불꽃을 거리지 않고 떨쳐나 걸사관철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흥로동계급은 백철불꽃의 정신으로 남흥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필요를 높이기 위하여 일하는 자세를 견고히 하고있다. 1, 2발생로직장과 암모니아이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일터마다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1, 2발생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표준작업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중산의 동음을 높이 올려놓고있다. 암모니아이직장의 로동자들도 한걸음의 선진, 한W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끼기 위한 공정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많은 원료를 합성공정에 보내주고 있다.

배 공정들에서 종전의 기준, 기록들을 돌파한 목표를 내건 남흥로동계급은 만부하로 건 상태에서 살바정비를 진행하면서 비료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의 배일을 담보해갈 일념으로 두뇌진, 기술진을 힘있게 벌려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적극 탐구도 입하고있다.

일꾼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나온 기발한 착상들을 찾아내어 서로의 창조적힘을 강화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새 기술도입의 적극적인 지지자, 창조자가 되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적양원들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 후에 봉만전조공정에 받아들인 새형펜베아가 계속 손을 내어 많은 로역을 철야내주기 위하여 지행한 동적진을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주체비료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조직적사업들을 짜고들면서 남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생산적양원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비약의 무기로 끌어주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연합기업소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남흥에서는 지금 비료산업이 시간이 다름에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우리의 브런짜 리퍼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비행장에서 무바국가리사의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에스를 맞이하시였다. 수많은 조선인민들이 수도의 비행장과 거리들에서 디아스 카넬을 환영하였다. 디아스 카넬의 조선방문을 반박하는 친선과 단결, 우의를 보여주고있다.

우바신문 《그란마》는 대결단계와 예술공연은 디아스 카넬과 우바대표단의 조선방문에서 김정은이 주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디아스 카넬과 함께 대결단계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수도 평양의 5월1일경주에서는 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바노예들이 평양의 밤하늘가에 울려 퍼졌으며 피렐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디아스 카넬의 모습들이 배경대에 펼쳐졌다. 김정은위원장께서 디아스 카넬과 함께 손을 잡으신 모습은 두 나라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의 화폭이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을 방문한 무바국가리사의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에스와 회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디아스 카넬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 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매임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어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무바국가리사의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에스가 조선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출발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비행장에 나오시며 디아스 카넬을 환송하시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중국의 환구방, 해외망, 향교소식망,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페츠크신, 인메르카스트통신, 신문들인 《이즈메르카스트》, 《포스트볼스카야 프라우다》, 《RT》TV방송, 텔레비전방송, 인터넷통신 페그룸, 인터넷신문 펜타, 우, 인터넷포털 《야드》, 《모스크바》, 우바의 중앙TV방송, 텔레비전방송, 웹남의 신문들인 《진전》, 《판도이 넌전》, 중앙TV방송, 내발신문 《미저두르》, 이란의 신문 《에이한 인리내슈널》, 프랑스 TV방송, 인디아의 ANI통신, 신문 《오우선 뉴스 포인트》,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보》, NHK 방송, 페마는신문 《나하르네트 뉴스 케스크》, 인 푸르공신문 《라브니르》, 에리트레아신문 《알 파르르》,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미스리 알야움》, 페네수엘라의 텔레푸르TV 방송, VTV방송과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맥두산 제스코조선친선협회, 제스코주제사상연구소 및 구원소조, 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학자를 위한 국제친선방기, 모트루갑조선친선협회, 민주공공주제사상연구소 전국위원회 인터넷포털에서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초창에 의해 무바내각수상 조선대덕더 가가워지고있다》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무바공화국 내각수상과 위원장 겸 내각수상과 진행하신 대외활동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건문헌들을 모시였다.

당의 과학 기술 중시로 선관철에 앞장선 미더운 녀성들

지난 6년간 수백명의 여성박사 배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전선위원들의 손길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으며 주체의 조선녀성운동과 더불어 우리의 녀성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도 한몫 담당하고있다.

많은 녀성들이 과학연구부문과 교육부문, 보건부문, 생산현장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과정에 박사로 자라났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 240여명의 녀성박사들이 배출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자대박사, 모녀박사들도 있다. 주제 101(2012)년 11월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가 진행된 이후 국가과학원의 녀성과학자들이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수여받았다. 그들의 위를 이어 국가과학원의 수십 명의 녀성과학자들이 박사도 자라났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서 값있는 싹을 틔우고있다. 우리 녀성과학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을뿐 아니라 들끓는 공창,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생산적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새 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녀성교육자들속에서도 많은 박사가 배출되었다. 지난 6년간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수십명의 녀성사들이 배출되었으며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많은 녀성교육자들도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녀성박사들 가운데는 이밖에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소문난 여러 농장들의 녀성과학자들도 있다.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과 과학적인 기업전략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높이는 수준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품들을 생산해내고있는 선봉식품공장의 지배인, 기사장도 있고 인민들의 호평받는 《불꽃기화장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 여러 가지 고려약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최친고려약공장의 지배인을 비롯하여 여러 공창, 기업소들의 수많은 녀성일꾼들도 박사학위에 당당히 들어섰다.

전선위원들의 품속에서 마음껏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며 여섯한 과학자, 교육자, 일꾼으로 성장한 우리의 녀성과학자들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당당히 개척하는 당의 뜻을 높이 만드는 길에 한몫 다 바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